

『柵山文稿』에 나타난 李友信의 文論 研究*

金紀燁**

目 次

1. 머리말
2. 李友信의 행력과 문학적 태도 변화
3. 『柵山文稿』의 구성과 편찬 경위
4. 『柵山文稿』에 나타난 文論
5. 맺음말

| 국문초록 |

李友信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文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학적 관념에 나름의 다양성이 작용하던 시기였다. 이우신은 어려서부터 金鱧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품체 작가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문학적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유가적 가치를 추구하고 도학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행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문학 활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우신이 소품체 작가들과 교류했던 시기의 작품과, 도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활동한 시기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먼저 문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그 계기가 드러난 작품과 작품에 드러난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문학적 경향이 변하게 된 양상을 살펴보고, 이후 文에 대한 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 작품을 분석하였다.

『柵山文稿』에는 이우신의 작품 22편과 편찬자인 김려의 발문을 포함하여 총 23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이우신이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唐宋의 문풍을 뛰어넘어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先秦兩漢의 문풍을 따라 司馬遷, 董仲舒 등과 비견할 정도라고 칭송한 김려의 말에서 이우신의 문학이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 중에 ‘文’을 주제로 한 논변을 중심으로 하여 이우신이 생각하는 道와 文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道를 토대로 하면서 文의 사회적 기능도 중시하였는데, 이는 학문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道의 실천이라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文의 기능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글에서는 이우신이 文을 거론한 부분을 발췌하여 文에 대한 그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科擧 공부를 위한 문장을 지양하고, 자아성찰과 내면수양의 수단으로 文을 정의한 것은 文을 통해 道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우신의 문학 중 일부의 시 작품을 근거로 작가의 문학적 관점을 소품적 문학으로 속단할 수 없다. 작가의 생애와 과도기적 사건, 또는 이에 따른 심경 변화가 나타난 작품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장을 수식하는 데에 치중했던 지난날의 태도를 반성하고, 文을 통해 도를 밝히고 발현해야 한다는 이우신의 견해를 반영하여 그의 문학적 관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李友信 薄庭叢書 柵山文稿 散文 道文 文章 道學 小品

1. 머리말

李友信(1762~1822)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장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대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문장의 세부적인 논의는 문학적 관념의 변화와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문체들이 형성·활용되는 데에 일조하였고, 이에 따라 문단에서는 당·송의 고문을 典範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고체나 소품을 수용하여 산문 창작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문인들이 문학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나갔으며 그런 배경이 작품에서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柵山文稿』는 『薄庭叢書』의 10책 20권에

수록되어 있다. 金鑿(1766~1822)은 『薄庭叢書』에 본인의 작품과 평소 긴밀히 교류했던 벗 15인¹⁾의 작품을 모아 놓았다. 이들 문인의 작품은 遺稿와 같은 문집의 형태로 실려 있거나 후대에 남겨둔 만한 특정 문체의 글이 선별되어 실려 있다. 총서에 실린 작품은 개인 문집의 경로를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이우신의 경우 『薄庭叢書』에 『柵山文稿』와 『竹莊散稿』가 실려 있고 개인 문집으로 『睡山遺稿』가 전한다.

이우신의 부친은 김려의 장인으로, 이우신은 어린 시절부터 김려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김려를 위시한 一群의 문인들과도 문학적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전개해나갔다. 한편, 이우신은 李端相 - 金昌翁 - 金新謙 - 金亮行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연원을 이어 받은 성리학의 대가로서 경학에 치중한 도학자의 삶을 살았다.²⁾ 그의 학통은 아들 李敏行과 주리론에 바탕을 두고 심설을 논한 華西 李恒老³⁾에게 전해지며, 이항로는 이우신이 砥平(경기도 양평지역의 옛 지명)에 있을 적에 직접 찾아가서 학문적으로 교류하기도 하였다. 이우신이 어린 시절부터 교유했던 문인 그룹의 성격과 소품적인 문학 활동 양상은, 이우신에서 이항로로 이어지는 학통을 감안할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문집에서 드러나는 文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우신의 문학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연구⁴⁾가 주

1) 15인 : 權常愼(1759~1824), 金鑿(1772~1833), 金善臣(1775~1846[추정]), 金祖淳(1765~1832), 李魯元(?~1811), 李復鉉(1767~1853), 李安中(1752~1791), 李愚淳(1760~?), 李鈺(1760~1813), 李友信(1762~1822), 李濟魯(?~1816), 李濟殷(?~?), 惠藏(1772~1811), 李彥學(1749~?).

2) 박준원, 『薄庭叢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3~24쪽.

3) 李恒老(1792~1868) : 자는 而述, 호는 華西, 본관은 碧珍으로 경기도 양평 출신이다. 주리론에 바탕을 둔 그의 사상은 尊王攘夷의 春秋大義라는 윤리와 애국사상과 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조 말기의 민족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승화되었다.

4) 박준원, 『睡山 李友信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1995, 111~128쪽.

를 이루었으며, 소위 齊梁體, 玉臺香奩體라 불리는 작품군을 다루면서는 이우신의 작품에 도학자로서의 자연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속시나 염정시에 집중되는 연구 경향⁵⁾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우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지를 『柎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우신의 행력과 문학적 태도 변화

(1) 이우신의 行歷과 世評

이우신의 구체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본격적인 연구도 진행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이우신에 대한 그간의 선행 연구와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정리하는 선에서 그의 행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우신의 자는 益之, 호는 文原·睡山·竹莊이다. 본관은 德水로 澤堂 李植의 후손이다. 그의 외조부는 문학과 학식으로 명성이 높았던 雪橋 安錫徽(1718~1774)이며, 종숙부는 柏月堂 李魯元(1756~1811)으로 『薄庭叢書』에 『추벽당문초』, 『백월당소고』가 실려 있다. 부친 李魯一은 김려의 장인으로 김려는 어려서부터 이우신을 선배로 존경하며 따랐다. 이우신 역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어려운 유배생활을 하던 김려에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解配 이후로도 돈독한 우애를 꾸준히 유지하며 평생 동안 교류하였다.

『柎山文稿』는 김려가 이우신의 산문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여기서 柎山의 의미는 싸리산으로 그가 살았던 驪州의 싸리산으로 추정된다.

5) 박정민, 『薄庭叢書』의 제량체와 옥대향림체 독해를 위하여, 대동한문학회, 김려 탄생 250주년 기념학술대회, 2016.

자신이 사는 지역을 호로 삼고 그 호가 문집의 이름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우신의 다른 호인 睡山과 竹莊도 고향 여주의 睡村(또는 水村)과 竹杖里에서 따온 것으로⁶⁾ 그의 시문집을 『睡山遺稿』, 『竹莊散稿』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우신의 世評과 관련된 부분은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諛議 李友信이 卒하였다. 이우신은 故 名臣 李植의 후예이다. 止庵 金亮行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이 醇正하고 품행이 단아하였다. 가난한 중에도 글을 읽었으나 벼슬길에 나설 뜻이 없었으므로, 士友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마침내 旌招의 禮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나오지 않아 그 포부를 펴지 못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⁷⁾

② 承旨 李止淵이 “故 諛議 李友信은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이 旌招의 반열에 있었으니, 넉넉한 구호의 은전을 내림이 마땅합니다.”라고 아뢰니, “적당히 도와주라고 도백에게 분부하라.”라고 하교하였다.⁸⁾

이우신은 1818년(순조 18)에 經筵官을 지내고 이듬해 侍講院諛議가 되었다. 관직의 성격상 왕성하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바라기 어려운 위치이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도 순조의 敦召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辭職疏⁹⁾를 올렸다. 위 실록의 내용과 그가 올린 사직소의 내용에는 순정한 학

6) 김영진, 『金鱧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대동한문화』 47집, 대동한문화회, 2016, 48쪽.

7)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1월 27일 기사. “諛議李友信卒. 友信, 故名臣植, 後也. 受業於止庵金亮行之門, 學術醇正, 操履端飭, 固窮讀書, 無仕進意, 甚爲士友所推重. 遂膺旌招之禮, 堅辭不至, 未究其用, 世皆惜之.”

8)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3월 5일 기사. “承旨李止淵啓言: ‘故諛議李友信, 家本貧寒, 無以營葬云. 曾在旌招之列, 合有優恤之典.’ 教曰: ‘量宜助給事, 分付道臣.’”

문, 단아한 품행, 가난 속에서도 학문에 뜻을 둔 전형적인 士類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 위 내용은 물론 실록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된 서술일 수 있다¹⁰⁾ 그러나 도학을 이었다는 金亮行의 문하에서 학업을 전수받은 실질적인 師承 관계, 직책의 임명에 대한 몇 차례의 사직소, 死後에 나라에서 장례를 지원했다는 실록의 기록 등 그간의 객관적인 행력과 세평을 참작해 볼 때 겸양과 소신, 자기 성찰에 중점을 둔 선비로서의 처신과 유학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2) 문학적 태도 변화

이우신은 김려 및 김선, 이안중, 민치복, 김조순, 권상신 등과 어울리며 다소 자유로운 성격의 문학 활동에 심취하였는데, 젊은 시절에 지은 염정시 중에는 남녀사이의 애정관계를 소재로 하여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대범하게 표현한 작품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훗날 金亮行의 문인이자 동향인 閔致福의 충고를 받고 뉘우치며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중숙부(李魯元)을 따라 시를 배웠다. 또 丹丘 李平子(李安中)와 교류하면서 말과 생각을 전하였는데 두 사람이 모두 玉臺香奩의 시를 즐겨 지었고 나 역시 간혹 따라 지었다. 閔元履(閔致福)가 편지를 보내어 “齊梁의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말에 어찌 우리 마음을 얽매 수 있겠는가?”라

9) 『순조실록』 21권(순조 18년 11월 14일 2번째기사), 22권(순조 19년 3월 17일 4번째기사), 22권(순조 19년 12월 2일 1번째기사).

10) 『순조실록』이 편찬될 당시 심상규, 홍석주와 같은 노론계 인사가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같은 노론 입장에서 이우신을 옹호하는 태도가 일부 포함된 서술이라는 추측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이우신에 대한 학문의 진정성이나 품행의 평가, 선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부분, 死後에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는 대목과 가난하지만 벼슬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구절은 당시 실록을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

고 꾸짖자 내가 이에 송구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사례하였다. 平子가 죽고 종숙부가 京師로 이사 가고 난 후에는 나 또한 다시 시를 짓지 않았다.¹¹⁾

위의 글을 통해 이우신이 어려서부터 교유했던 이노원과 이안중(1752~1791) 역시 옥대향림체를 즐겨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의 골자는 이우신이 젊어서부터 이들과 화답하며 지은 시를 두고 민치복이 편지를 보내어 외설스러운 시풍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뉘우친 것이다.

문학적으로 교유하던 이안중이 세상을 떠난 해는 이우신의 나이 29세일 때로, 소위 제량체, 옥대향림체라고 불리는 시를 이 시기 이후로는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안중이 어려서부터 따르며 시를 배웠던 종숙부 이노원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대목으로 보아 기존의 문학적 관계를 유지할 만한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우신의 문학적 태도와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지난날의 문학 활동에 대한 자기반성이 더해지면서 문학적 노선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우신의 문학에 대한 경향은 여성적인 시선에서 섬세한 필치가 드러나는 시기와, 경학을 위주로 한 도학자로서의 입장에서 규범적인 사상이 담긴 시기의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¹²⁾ 이에 대해서는 이우신이 민치복에게 쓴 다음의 시를 근거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경학

11) 『睡山遺稿』 권1. “余少從從叔父學詩。又交丹丘李平子，通其言議。二公皆好爲玉臺香奩之詠，余亦間效爲之。閔元履貽書責之曰：‘齊梁淫褻，何足以累吾靈臺？’余於是懼然悔謝。既平子沒，從叔父徙於京師，余亦不復作詩。” 이 대목은 박준원(1995), 박정민(2016)의 논문에도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다.

12) 이는 작품별 창작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상대적 관점에서 나는 것이다. 이우신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특정 시기의 문학이라고 해서 반드시 옥대향림체의 작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규범적인 성격의 작품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 몰두하겠다는 이우신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¹³⁾

단약이 명을 반드시 늘려주지는 않고	金丹未必可長年
역사에 공명 남기는 일에도 무던하네	青史功名亦漫然
소식적 미친 짓은 진정 나쁜 일이었고	少日猖狂眞惡業
여태 즐겁던 정취 지나버린 인연이라네	向來歡賞已陳緣
그저 강학으로 유익한 벗을 그리며	只因講問思三益
풍류로 칠현들 동경하지는 않으리	不爲風流慕七賢
가까웠던 滄洲는 멀어져 버렸고	咫尺滄洲成契濶
禁城은 자옥한 안개속에 가려졌구나	禁城恍隔萬重烟

위 시에서는 미친 짓[猖狂]과 나쁜 짓[惡業]으로 표현 될 만큼 거리낌 없던 지난날의 문학적 외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유익한 벗들과의 강학을 통해 순정한 학문을 추구하려는 이우신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특히 頸聯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류와 멋을 추구하고 자유분방한 문학을 즐겼던 죽림칠현과 같은 교우를 멀리하고, 바르고 성실하며 견문이 많은 벗을 가까이 하려는 유학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준다.

朱子의 강학을 상징하는 滄洲와는 멀어져 버렸고 왕도를 빚댄 禁城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서는 경학자로서의 文名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엿보인다. 이우신은 훗날 經筵官과 侍講院諮議에 임명되기는 하지만 관료로서의 문학적 역량을 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시가 창작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소식적[少日]’이나 ‘이미 묵은 인연[已陳緣]’이라는 시어를 통해 아주 젊은 시절의 작품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의 글쓰기 방식이 젊은 시절에 비해 다소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민치복의 충고에 답한 내용의 “다시 시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과 위의 시에 드러난 이우신의 생각을 근거해 볼 때,

13) 박준원(1995), 111~128쪽.

소수로 남아 있는 자연을 읊은 시나 도학적인 경향의 시는 某種의 변화를 이후에 지은 시로 추정된다.

3. 『柎山文稿』의 구성과 편찬 경위

(1) 『柎山文稿』의 구성

현재 『溱庭叢書』에는 이우신의 작품집으로 『竹莊散稿』과 『柎山文稿』 두 권이 수록되어 있다. 『竹莊散稿』에는 총 95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柎山文稿』에는 이우신의 작품 22편과 김려의 「題後」를 포함하여 총 23편의 산문이 실려 있다. 『柎山文稿』는 『溱庭叢書』에서 10책 20권에 해당하며 書簡 6편, 祭文 4편, 辨 3편을 비롯해 記, 原, 解, 讀, 行狀, 賦 등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문체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柎山文稿』에 실려 있는 23편의 산문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한 것이다.¹⁴⁾

<표 1> 『柎山文稿』의 구성

차례	작품명	내용	분류
1	上從叔父書	종숙부 이노원에게 올리는 글로 『詩經』을 인용하여 처신과 교유에 대한 견해를 피력함.	書牘 (6)
2	答金鴻豫書	객지에 있어서 답장을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 文章의 5가지 제목(志·氣·道·事·體)을 논하면서 威儀를 삼가고 志慮를 곧게 하면 文이 여기에 있다고 일러줌.	

14) 아래의 정리는 『柎山文稿』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며, 분류에서 문체별 용어는 이가원의 분류를 따랐다. 「讀爾雅」, 「讀王文公文鈔」를 序跋類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점은 있으나, 여기서는 서발류의 하위 분류항인 「讀」에 “古人之 글을 읽을 때에 偶然히 얻은 바 있으면 簡後에 쓰고 이름을 「讀」이라 하였다.”는 정의에 따라 서발류로 분류해 두었음을 밝힌다.(이가원, 「漢文 文體의 分類的 研究(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0.12, 159~192쪽.)

3	答金季良書	병진년(1796) 34세 때 쓴 편지로 지나친 공경의 태도를 지적함. 말[言], 文, 마음[心], 氣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진실과 정도에 입각한 처신을 당부.	
4	答洪綏卿書	이우신이 문장의 글재주의 말단에 얽매이고 과거시험에 얽매인 자신의 지난 행적을 반성하고, 타고난 기질이 모자란 자신에게 단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주시기를 상대에게 바람.	
5	答金參議履永書	참의 김이영이 河陽에 정배되어 1799년 즈음의 편지로 추정. 그동안 바쁜 공무로 시달려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자연 속에서 성정을 함양하고 독서에 힘써 훗날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축하함.	
6	與金黃州復淳書	선대 명신 文忠公(金復淳의 고조부 金壽恒)과 文敬公(김복순의 종조부 金元行)의 덕과 공업을 기리고 己巳換局과 辛壬獄事의 사면을 들어 간신들이 나라를 쪼먹은 폐해를 거론함. 기타 공신들과 비교하면서 文忠公을 廟堂에 配享하여 나라에서 제사지내도록 하는 특전(不祧之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요구함.	
7	李貞翼公 內賜甲冑記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무신 李滄 장군에게 하사된 갑주에 대한 기록. 宋時烈의 문집에서 「하사받은 담비 가죽에 대한 발문(內賜貂裘跋)」을 읽고 감회가 있어 쓴 것으로, 이후 갑주의 소재를 거론하면서 예전에 비해 쇠락한 현실 세대를 한탄함.	雜記 (1)
8	讀爾雅	쫄나라 郭璞이 주석을 단 爾雅의 원저자의 소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訓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냄.	
9	讀王文公文鈔	王安石에 대해 商鞅과 桑弘羊과 같은 부류의 간악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周公을 칭탁하여 세상을 겁박함을 비판함. 상양, 상홍양과 주공의 차이점을 利益과 正道를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왕안석과 같이 이익을 도모하는 간악한 자들로 인해 천하가 혼란해짐을 탄식함.	序跋 (2)
10	箕子朝周辨	『史記世家』에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러 가다.”라는 구절을 두고 李子(이우신 자신을 가탁한 인물로 보임)와 변론한 내용으로, 주나라에 대한 기자의 조회 여부를 두고 정당성을 논의함.	
11	九族辨	일가 종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어떠한 禮를 차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喪服을 기준으로 ‘族’의 범주를 정하고 구체적인 ‘族’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함.	
12	辨荀子	荀卿의 스승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한 글. 공자와 나란히 일컬어진 ‘子弓’이란 사람을 두고 韓愈는 「野臂子弓」으로 추측하였으나 이우신은 簡을 근거로 공자 제자인 仲弓(冉雍)일 것으로 추정. 簡이 지나쳤던 순자의 폐단에 주목하여 중공과 연관을 지음.	論辨 (7)
13	天地不祿對	『周禮』의 구절 중 註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과 땅의 큰 神은 강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두고 의견을 개진. 鬼와 神, 陰과 陽을 예로 들어 주나라의 제도는 周公에게서 나왔으므로 주공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14	文解	文이란 聖人の 도구로서 文의 효용성을 밝힌 글.	
15	文原	진정한 文의 가치와 文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文의 본질에 대한 논의.	
16	靜言	李子和 金子로 설정된 두 인물의 설전이 주를 이루는 글. 도가적 가치보다 詩書禮樂을 양분으로 삼고 주공과 공자를 가까이 하는 유가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내용.	
17	宗室安豐君行狀	安豐君 李영(火+永)에 대한 행장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와 행적을 밝히고, 왕의 친족이라는 제약으로 守墓官 외에 능력을 펼 수 없었던 이영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傳狀 (1)
18	祭閔掌令彝顯文	閔彝顯(貞菴 閔遇洙의 손자)을 애도하는 제문	哀祭 (4)
19	祭從叔父文	이노원을 애도하는 제문으로 辛未年(1811) 10월에 쓴 글.	
20	祭僉正 金公履九文	金履九(金亮行의 아들)를 애도하는 제문	
21	祭金執義直淳文	金直淳(金亮行의 손자)를 애도하는 제문	
22	執孤燈賦	가을 밤 古人을 생각하며 쓸쓸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등잔불에 부친 내용.	辭賦 (1)
23	題柵山文藁卷後	김려가 쓴 『柵山文稿』의 題後로 문고를 정리한 경위를 밝히고 작자인 이우신의 인물과 문학에 대한 평을 가함.	序跋

『濶庭叢書』 내에 『柵山文稿』가 시작되는 첫 장에는 “李友信益之 著”, “濶庭散人 較定”이 雙行으로 적혀 있고 이어서 종숙부인 柏月堂 李魯元에게 올리는 글인 ‘上從叔父書’가 첫 작품으로 실려 있다.

『柵山文稿』의 전반부에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이 실려 있고 중반에는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논변이 정리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제문에 이어 한 편의 賦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김려가 『柵山文稿』의 산문 작품을 편찬한 기준은 대체로 저술된 시기보다는 문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편찬 경위

김려는 끝에 첨부한 題後에서 『柵山文稿』를 편집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는데, 이우신 작품의 성격이나 특징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내가 竹莊 李公의 시를 모아 한권으로 만들고 나서 또 공의 아들 敏行 景訥에게 편지를 보내어 문고를 찾아서 내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것과 함께 정리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다.

대개 우리나라는 牧隱과 畢齋 이후로 문장으로 알려진 이가 무릇 십 수 명인데 다들 唐宋 문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은 홀로 경계를 훌쩍 넘어 先秦兩漢의 문장을 곧장 따라서 드러내어 揚雄, 司馬遷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董仲舒, 鼂錯와 나란히 내달렸으니 훌륭하고 위대하다.

문장이 구태여 많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공이 이제 經術로 王師가 되었으니 만약 하늘이 수명을 더 보태준다면 문장이 많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아질 것이다. 아쉬운 대로 이것으로 전에 문고를 유실하여 탄식한 데 대하여 위안을 삼는다. 기묘년 정월 보름에 薄叟 쓰다.¹⁵⁾

위는 김려가 1819년 정월 보름에 쓴 『題柵山文稿卷後』의 전문이다. 김려의 문집인 『薄庭遺稿』 권10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있고 내용도 동일하지만 몇 개의 異體字가 섞여 있고, 끝부분에 “云爾 己卯月正上元薄叟書”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위 題後에 나타난 김려의 말을 참고해 볼 때, 소장하고 있던 이우신의 시를 모아 한 권으로 만든 책은 『竹莊散稿』를 말하며, 이후에 이우신의 아들 이민행이 보관했던 문고와 김려가 보관하고 있는 문고를 합하여 정리해서 엮은 것이 바로 『柵山文稿』임을 알 수 있다. 『題後』에서 말한 文稿란 이우신이 쓴 산문으로 현재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이우신이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唐宋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고문가들을 뛰어넘어서 先秦兩漢의 문풍을 따라 드러내며

15) 金鑣, 『柵山文稿』, 『題柵山文稿卷後』. “余既輯竹莊李公詩爲一卷, 又貽書於公之胤敏行景訥, 覓其文稿, 並余巾衍所莊, 釐爲一卷. 蓋我東自牧隱·畢齋以後, 以文鳴者, 凡十數家. 皆不出乎唐宋之範圍, 而公獨別拓門階, 直從先秦兩漢中出來, 肩視揚馬, 方駕董晁, 壤且偉矣. 文何必多乎哉. 然公方以經術爲王者師, 若天假之年, 文章將不期多而多矣. 聊以是慰前日之遺失而興歎者云爾. 己卯月正上元薄叟書.”

司馬遷, 董仲舒 등과 비견할 정도라고 칭술한 부분에서 그의 문학이 어떠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담정총서』에는 김려가 평소 교유하던 문인의 작품을 모아서 遺稿 형태로 망라하여 실어놓았는데, 위 「題後」를 쓴 연도와 이우신의 몰년을 참고해 볼 때, 『柵山文稿』는 이우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김려는 훌륭한 문장은 굳이 수적으로 많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우신이 더 오래 산다면 자연스레 그의 훌륭한 글이 더욱 풍부해지리라 기대하였다. 글의 끝부분에는 이우신의 저술을 잃어버린 탓에 지인의 작품을 후대에 다 전하지 못하게 된 김려의 아쉬운 마음이 드러난다. 經術로 王師가 되었다는 것은 실록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이우신이 경연관과 시강원 자의에 임용되었음을 가리키는 말로, 김려는 이우신의 수명이 남아 있는 동안 그의 활발한 문학 작품을 통해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3년 뒤인 1822년에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

4. 『柵山文稿』에 나타난 文論

(1) ‘文’을 주제로 한 논변

‘학문이 순정하다’¹⁶⁾는 평을 듣는 이우신 문학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우신은 道를 토대로 진정한 文의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柵山文稿』의 ‘文’을 주제로 쓴 「文解」와 「文原」에 잘 드러나 있다.

16)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1월 27일 기사. “止庵 金亮行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학문이 醇正하고 품행이 단아하였다. 가난한 중에도 글을 읽었으나 벼슬길에 나설 뜻이 없었으므로, 士友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受業於止庵金亮行之門, 學術醇正, 操履端飭, 固窮讀書, 無仕進意, 甚爲士友所推重.]”

1) 文解

『文解』는 『杻山文稿』에 14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文의 의미와 그 효용성에 대해 논한 글로 당대의 여느 문인들이 생각했던 道本文末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우신의 인식을 보여준다. 文을 정의하면서 그 본질과 가치를 중심으로 밝혔는데, 이를 다음의 몇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文이란 聖人の 중요한 도구이다. 仁義性命은 文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禮樂刑政은 文이 아니면 정립되지 않으며, 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는 文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文이란 천지의 큰 보배이자 고금의 요체이다.¹⁷⁾

② 그러므로 聖人の 文은 모두 온 세상을 다스리는 文이니, 무엇을 聖人の 文이라고 하는가? 『易經』의 유도와 『詩經』의 유입, 『書經』의 구분과 『禮記』의 따짐과 『春秋』의 세세함이 이것이다.¹⁸⁾

③ 聖人の 文은 도에서 나오니 도는 하나일 뿐이며 文도 역시 하나일 뿐이다. 하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천지의 큰 보배이자 고금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聖人の 文은 모두 온 세상을 다스리는 文이며 賢人の 文은 도에 목숨 바치고 세상을 구제하는 文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辯이라 하고 꾸미는 것을 工이라 하는데 군자는 이를 文이라 하지 않으니 하나를 등져서 둘이 되기 때문이다.¹⁹⁾

17) 李友信, 『杻山文稿』, 『文解』. “文者聖人之大用也. 仁義性命, 非文不著, 禮樂政刑, 非文不立, 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 非文不順. 故文者天地之大寶, 古今之樞機也.”

18) 李友信, 앞의 글. “故聖人之文, 皆經天緯地之文也. 何謂聖人之文? 易之誘, 詩之入, 書之畫畫, 禮之斤斤, 春秋之區區是也.”

19) 李友信, 앞의 글. “聖人之文, 出乎道, 道一而已, 文亦一而已. 一者何也? 天地之大寶, 古今之樞機是也. 故聖人之文, 皆經天緯地之文也; 賢人之文, 殉道救世之文也. 恣睢以爲辯, 藻飾以爲工, 君子不謂文叛一而二者也.”

④ 文에서 사람을 알 수 있으며, 文에서 세태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聖人の 文은 깊고도 넓리 미치며, 賢人の 文은 삼가고 틀에 맞추며, 異端人の 文은 치우치고 흐릿하며, 文人の 文은 화려하고 방탕하며, 치세의 文은 간략하고 분명하며, 난세의 文은 거침없고 어그러지며, 망국의 文은 번잡하고 축급한 것이다.²⁰⁾

①에서 文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文이란 聖人の 큰 도구이며, 천지의 큰 보배이자 고금의 요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임을 중점으로 밝히고 있다. 聖인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에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文은, 仁義와 같은 성정이나 禮樂과 같은 제도적인 면을 정립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며, 심지어 五倫이 인간관계에서 실현되는 것조차 文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될 만큼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사회 교화를 목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의 文의 성격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文의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

②에서는 經天緯地하는 聖人の 文을 六經으로 설정하고 『樂記』를 제외한 각 경전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밝혀 놓았다. 여기 거론된 經典에서 말하는 文은 총체적인 文化의 의미에 가깝다. 이는 文을 통해 전해지는 성인의 교화가 구체화된 것으로²¹⁾ 인간의 문화는 성인이 경전을 통해 사람을 인도하고 예의도덕을 정립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文을 천지의 큰 보배이자 고금의 요체라는 말로 첫 단락에서 文을 정의한 후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③에서는 이에 덧붙

20) 李友信, 앞의 글. “即其文其人可知已, 即其文其世可知已. 故聖人之文深而周, 賢人之文謹而則, 異端人之文僻而昏, 文人之文麗而蕩, 治世之文約而明, 亂世之文驚而舛, 亡國之文繁而數.”

21) 강명관, 『鄭道傳의 載道論 研究』, 『漢文學論集』, 檀國漢文學會, 1992, 78쪽. 文을 인간의 문화로 파악한 정도전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여 道가 하나인 것처럼 文도 하나라는 점을 전제로 도와 문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道가 둘이 될 수 없듯이 文도 둘이 될 수 없다는 말과, 賢人の 文을 道에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구제하는 文으로 규정한 것은 당대 성리학적 관념에 기반한 道文一致의 관점을 고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文을 주제로 하면서도 인재선발과 같은 입신양명으로서의 목적, 事大交隣이나 국가적 위상과 같은 외교적인 목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제기나 현안에 대한 설득 및 해명으로서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을 사람과 당대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교량으로 인식하여 文을 통해 聖인과 賢人, 異端인과 文人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의 흥망까지도 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학문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떠나 文의 문화적 효용과 교화적인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文의 범주에 있어서도 말이나 글을 뜻하는 文章이나 文學의 관념에서 확장하여 총체적인 文化나 文明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우신이 말하는 文은 사회 교화적 기능을 가진 효용성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조선 시대 사대부층이 생각한 文學의 상위 가치인 道에 대한 文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조선 시대 뿐만 아니라 전근대 동아시아의 文學 논의에서 중요한 현안이었다.²²⁾ 이우신 역시 진정한 文의 가치를 道에 기반한 文의 사회적 기여도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文을 인간과 사회관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였다.

이우신은 도를 중시하는 道本文末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文을 경시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重道不輕文의 입장에서 道를 기저로 하고 이를 파악하는 경로로서의 文을 대하는 시각은 因文入道의 관점을 견지한 것이다. 또한 ‘文의 功效’나 ‘六經의 文에 대한 숭상’, ‘道를 전

22) 윤재민, 『조선시대 문인학자들의 문학관』,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181쪽.

하는 필수불가결의 도구로서 文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은 고문가로서의 文을 대하는 양상과 일부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2) 文原

『文原』은 『柵山文稿』에 15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文의 본질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전반적인 서술 구조는 “무릇 文의 진흥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일어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펼치고 약은 자는 이를 따른다.[凡文之興, 興于治也, 知者伸之, 巧者循之]”라는 구절을 처음부분과 끝부분 뿐만 아니라 중간 내용의 전환되는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① 무릇 文의 진흥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일어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펼치고 약은 자는 이를 따른다. 왕성하게 펼치는 것을 仁이라 하고 청명하게 넘쳐나는 것을 知라 하고 단단하게 채워진 것을 禮라하고 총괄하여 보조해주는 것을 義라고 한다. 고른 인애와 환한 지혜와 베푸는 예절과 엄숙한 의리,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서 文이 그 가운데에서 실현된다. …… 온 천지를 다스리는 것을 文이라 하며, 도덕이 높고 전문이 넓은 것을 文이라 하며, 영민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文이라 한다.²³⁾

② 무릇 文의 진흥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일어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펼치고 약은 자는 이를 따른다. 이러므로 신묘하게 트이고 크게 합하여 文이 싹트며, 화하여 번성하고 확립되어 文이 생겨나며, 화려하고 무르익어 文이 드러나며 情과 性이 트이고 이끌면서 文이 영기게 된다. 천지에 가득 차고 빈 허공에 메우며, 음양에 두루 미치고 고금을 관통하여, 세차게 출렁이고 크

23) 李友信, 『柵山文稿』, 『文原』. “凡文之興, 興于治也, 知者伸之, 巧者循之. 淳鬱宣著之謂仁, 清明汜濩之謂知, 栗理察塞之謂禮, 彌綸輔相之謂義. 仁均知淑禮說義肅, 四材具而文行于其中矣. …… 經緯天地曰文, 慈惠愛民曰文, 道德博聞曰文, 敏而好問曰文.”

게 넘실대며 펄럭이고 휘날리니, 저 文은 지극하면서 훌륭하다. 그러므로 氣는 왕성하면 흩어지고 物은 한 가지만 쓰면 해져서 고르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한다. 하나가 아닌 것을 통일하였으니, 대단하구나. 文이여! 사람의 다스리는 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²⁴⁾

③ 이리므로 군신·부자·남녀·빈주·장유는 친밀과 분별을 정립한 것이며, 종묘·조정·활쏘기와 향음·경사와 조문·장례와 매장·제사는 處所를 정립한 것이며, …… 성인이 후대를 염려해주심이 지극하다. 저 文이란 무엇인가? 다스리는 기강을 총괄하고 잘못된 이치를 바로잡고 뒤섞인 상황을 분별해주고, 깊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천하의 의심을 풀어주고, 만물의 정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와 달은 충만함을 형상하였고, 귀신은 모자람을 형상하였고, 번개·이슬·바람·천둥은 신묘함을 형상하였고, 산천초목은 불변함을 형상하였고, 금수와 蟲魚는 변화를 형상하였으니, 대단하구나. 文이여! 사람의 다스리는 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²⁵⁾

제시한 각 단락의 첫 구절에 “文之興 興于治”의 治는 “사람의 다스리는 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人治咸矣]”라고 반복된 말을 근거로, 이 人治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거론한 것이며, 文을 인간의 문명과 문화라는 범주 안에 두고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이다.

본성의 바탕이 되는 四端을 현실에서 구체화 하는 방도로서 文의 기능

24) 李友信, 앞의 글. “凡文之興, 興于治也. 知者伸之, 巧者循之. 是故神開熒合而文萌矣, 化盛明立而文生矣, 英華[女+隹]粥而文形矣, 情性疏導而文疑矣. 盈天地, 彌寥廓, 泱陰陽, 貫今昔, 沍沍焉湯湯焉, 盼盼焉洋洋焉, 秋秋焉翔翔焉, 夫文至矣美矣. 故氣盛而潰, 物專而弊, 而齊不齊. 其一不壹, 大哉文也! 人治咸矣.”

25) 李友信, 앞의 글. “是故君臣·父子·男女·賓主·長幼, 所以立附別也; 郊廟·朝廷·射饗·慶問·葬埋·祭祀, 所以立處所也. …… 聖人之憂患後世, 至矣. 夫文何爲者也? 統倫治之紀, 攝揉枉之理, 別紛綸之形, 顯幽隱之狀, 決天下之疑, 括萬物之情. 日月象其盈, 鬼神象其闕, 雷露風霆象其神, 山川草木象其恒, 禽魚蟲獸象其變, 大哉文也! 人治咸矣.”

을 밝히고, 諡法에서 시호를 ‘文’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인용하여 정의하였다. 또 文의 실현과 작용을 논하면서 文을 사람의 性情과 관련하여 논하였다. 나아가 文을 천지에 가득차고 음양에 알맞으며 고금을 관통하는 신묘한 작용을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각종 상황과 사물을 정립하고 형상화하는 요체로 간주하였다. 이 역시 단순한 文章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道를 이어주는 매개로서 文의 가치를 이해하는 이우신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文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을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므로 넉넉히 일러주고 바로 이루어주는 것은 『詩經』의 다스림이며, 엄숙·장엄하고 분명하게 경계 짓는 것은 『書經』의 다스림이며 …… 천하의 다스림이 六經에 다 갖추어져 있다.²⁶⁾ 그러므로 “무릇 文의 진흥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일어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펼치고 약은 자는 이를 따른다.” 라고 하였다. 정사가 잘 다스려지면 文도 잘 다스려지고 정사가 혼란하면 文도 혼란해지며, 도가 융성해지면 文도 융성하고 도가 쇠락해지면 文도 쇠락해진다. 그러므로 정치가 관대할 때는 글 짓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文도 늘어난다, 정치가 혹독할 때는 글 짓는 사람이 각박하면 文도 까다로우며, 정치가 돈후할 때는 글 짓는 사람이 충실하면 文도 올바르며, 정치가 산만할 때는 글 짓는 사람이 태만하면 文도 방탕해진다. …… 文으로 보이는 것이 심오하니 이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다.²⁷⁾

六經에서 각 經典의 성격에 따라 밝힌 다스림의 사례 및 정치와 文의 관계, 사람과 文의 관계는 이우신이 文의 가치와 영역을 일반 개인에 국

26) 李友信, 앞의 글. “是故導達直遂, 詩治也; 齊莊明畫, 書治也. …… 天下之治, 六經盡之矣.”

27) 李友信, 앞의 글. “故曰: ‘凡文之興, 興于治也. 知者伸之, 巧者循之.’ 政治則文治, 政亂則文亂, 道隆則文隆, 道污則文污. 是故其政寬者, 其人肆則其文弛; 其政猛者, 其人苛則其文絞; 其政惇者, 其人忠則其文直; 其政慢者, 其人怠則其文淫. …… 文觀深矣, 蔑以尙矣.”

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범위로 확대하여 인식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文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道에 따른 文의 융성과 쇠퇴를 언급한 것은, 道를 기반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道文一致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文解』에서 보여준 ‘文을 통해 사람과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이론을 『文原』에서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다음 단락의 사회·정치적 실태를 파악하고 正道를 실현한 文의 구체적인 활용사례로 이어진다.

① 이따르므로 선왕이 그러한 점을 알아서 3년에 한 번 사람을 등용할 때면 어질고 능력 있는 이의 글과 말에 옳고 그른 것을 올려서 폐출하거나 배치하며, 12년에 한 번 巡狩할 때면 列國의 詩風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열하여 높여주거나 강등시킨다. 사특한 말이나 방탕·교묘한 글이 있으면 고생을 시켜서 욕을 주고, 귀양과 유배로 두려움을 주어 한결같이 온 세상의 문장을 하는 이에게 정밀하고 결백하며 깨끗하게 닦아 순정하게 도를 일률적으로 따르도록 하지 않음이 없었다.²⁸⁾

② 주나라가 쇠퇴하자 왕도 정치가 그쳐서 老聃·韓非·惠施·鄧析·田駢·慎到·楊墨의 무리가 끊임없이 불쑥 나와서 재주를 부렸다. 고루하고 왜곡된 식견을 꾸미고 이리저리 놀리는 말재주를 바탕으로 秦代에 와서 大體를 이루었으니, 사람과 文을 갈라놓고 무너뜨린 변고를 이로부터 이루 따질 수 있겠는가. 이따르므로 正道가 물러나면서 기교가 판치고 기교가 물러나면서 竊盜가 판치게 되었다. 文을 절도하는 지경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무릇 文의 진흥은 다스려지는 데에서 일어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펼치고 약은 자는 이를 따른다.”라고 한 것이다.²⁹⁾

28) 李友信, 앞의 글. “是故先王知其然也, 三年一大比, 則羞賢能之書言之中失, 而廢置之; 十二年一巡狩, 則陳列國之詩風之善惡, 而黜陟之, 其有邪惡之言·淫巧之文, 耻之以艾韋絀履, 畏之以魑魅有北, 壹使夫天下之爲文者, 莫不精白濯刮醇然一比乎道.”

29) 李友信, 앞의 글. “周室墜而王政過, 老聃·韓非·惠施·鄧析·田駢·慎到·楊墨之群, 涌涌而術, 飾其固陋偏曲之見, 騁其縱橫裨闔之舌, 至秦而遂大, 決裂破壞人

①에서는 文의 정치적 기능이 드러난다. 文을 통해 직위에 있는 사람의 善惡과 사회적 실태를 판단한 것은 文에 삶의 양식이 드러나고 당면한 처지가 반영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우신은 文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文으로 개인의 사상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태도를 신중히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文은 개개의 사람이 다루는 좁은 영역의 범주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道를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도리에 어긋난 文의 정치·사회적인 과급을 염두에 둔 것으로 文으로 인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위 ②의 단락과 앞서 『文解』에서의 “주나라 이후로 치세는 드물고 난세는 많아서 어지러워 망하게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왕도정치가 행해지던 주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이후의 혼란한 세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우신의 시대비판적인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이우신의 文에 대한 입장은 유가적 이념을 중시하는 학자로서의 본분과 떨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서는 육경을 저술한 성인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하고, 시대로서는 왕도가 실현되었던 주나라를 이상국가로 인식한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文의 진흥과 世道를 연관 짓고 바람직한 文의 정립을 촉구한 모습은 文을 통한 道의 사회적 실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書牘에 표현된 文論

편지글의 내용에 앞서 편찬자의 작품 배치와 순서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한다. 이우신의 書牘은 『柵山文稿』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김려가 이우신의 작품을 편집하면서 문집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문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서독의 첫머리에 제시된 『上從叔

文之變，自是而可勝原哉？是故道隱而術，術隱而盜，文至於盜，而不可言矣。故曰‘凡文之興，興于治也。知者伸之，巧者循之。’

父書」는 편지글로 정해진 분류의 틀을 벗어난 성격과 형식을 보인다.

첫 편지 「上從叔父書」는 이우신의 생각을 종숙부에게 올리는 글로 분류상으로는 書牘의 첫 편으로 들어가 있지만 논변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서독의 일반적인 체제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대체로 형식을 갖춘 편지글이라면 書頭に 起頭나 瞻仰으로 시작하여 候間 부분이 실려 있는 것을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³⁰⁾ 그러나 이 글은 인용된 『시경』의 구절로 시작하여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우신의 의견을 덧붙인, ‘시경구절 제시-구절의 의미풀이-이우신의 의견’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는 계절에 따른 안부를 묻거나, 편지를 받고 쓰게 된 경위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입부부터 “詩云 標有梅 其實七兮”로 글을 시작하여 “其詩曰”, “詩云”, “○○之詩曰”과 같이 시경을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한 점이 특징이다. 끝부분 역시 편지글로서의 結尾가 아니라 이우신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 뒤에 “恐懼死罪”로 글을 맺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외람된 자신의 생각을 상대가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疏章의 결미와 유사한 글쓰기 방식을 보인다. 이는 뒤이어 실려 있는 서독과 분명한 형식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枉山文稿』에 실려 있는 나머지 5편의 서독의 도입 부분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① 「김홍예에게 답하는 편지」

가을이 점점 깊어집니다. 멀리서 생각해 보니, 형께서 어른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생활이 평안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전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 아될 점이 있었지만 마침 객지 상황이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³¹⁾

30)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1) 李友信, 『枉山文稿』, 『答金鴻豫書』, “秋候漸深. 緬惟兄侍學起居, 佳勝. 前承示

② 「김계량에게 답하는 편지」

저는 머리를 조아리며 秀才 金君 족하게 답장 드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 지 시간이 흘러 한 해를 넘겼습니다. 저는 황송하게도 감히 답장하지 않았고, 답장하고자 했으나 답장할 방도를 몰라서 마침내 그만두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거만하고 소홀히 한 셈이라 거듭 족하게 죄를 짓게 된 것일까 염려됩니다.³²⁾

③ 「홍수경에게 답장 올리는 편지」

서로 30리 떨어진 곳에서 덕망이 눈부신 분과 껍 가까이 있었으면서, 제가 고루하고 우매하여 이 고장의 어진 선비를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좌우께 제 뜻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전달할 길이 없어…….³³⁾

④ 「참의 김이영에게 답하는 편지」

족하게서 남쪽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부터 늘 편지를 보내어 축하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또 한가로이 있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생각을 여쭙려 했는데 우물쭈물하다 못하게 되었으니 그저 그리움만 절실할 뿐입니다.³⁴⁾

⑤ 「황주 김복순에게 보내는 편지」

초여름이 화창한데 신명이 화락함을 도와 생활이 두루 평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적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족하게 한 번 연락 드리고자 했습니다만…….³⁵⁾

中, 有可復者, 適客撓未能.”

32) 李友信, 『柵山文稿』, 「答金季良書」. “友信頓首 復書秀才金君足下 自蒙辱書 歷時踰歲 而僕愧恐不敢答 欲答焉而不知所以答 遂寢而不答 又恐偃蹇疏慢 重得罪於足下.”

33) 李友信, 『柵山文稿』, 「答洪綏卿書」. “一舍相望 散光甚邇 而固陋顛蒙 不得從鄉邦賢士之後 講其所不及 雖欲自通於左右 而其路無由…….”

34) 李友信, 『柵山文稿』, 「答金參議履永書」. “自聞御者南歸 每擬奉書相賀 且叩閣中所得之一二 而因循未遂 第切馳仰…….”

35) 李友信, 『柵山文稿』, 「與金黃州復淳書」. “首夏清和 伏惟神勞愷悌 起居萬安 某竊有區區所懷 久欲一徹於左右…….”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上從叔父書」 이하 5편의 서독의 서두는 위와 같다. 5편 모두 편지글의 도입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①과 ⑤에서는 계절에 따른 인사말과 안부로 시작하였고 ②, ③, ④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과 처한 정황에 의해 답장이 늦어 송구스러운 상황이 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上從叔父書」의 서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上從叔父書」가 편지글이었다면 아마 서두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문고를 정리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김려가 이우신의 아들에게 문집을 받아서 편집할 당시에 제목만 보고 편지글로 분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종류가 다른 글임을 알면서도 김려가 편차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첫머리에 실었을 수도 있다.

후자의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로 각 서독의 목적을 들 수 있다.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서독 중에 「上從叔父書」와 맨 마지막의 「與金黃州復淳書」를 제외한 나머지 4편의 편지는 모두 답장의 형식이다. 조심스레 추측하건대, 『柵山文稿』를 정리한 김려와 자료를 제공한 이민행이 이우신의 서독 중에 상대에게 보내는 답장을 주로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起頭나 瞻仰, 候問이 빠진 「上從叔父書」는 애초에 편지글과 다른 성격의 글이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물론 편지글로 학문적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관념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시기 전부터 서신 문체가 이기설 등 철학적 내용을 논하는 방식이 발달하기 시작했고³⁶⁾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서찰과는 달리 개인의 신념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적을 두기는 하지만 이 서독은 그런 양상과는 다른 성질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척독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편지글의 형식은 갖추기 마련이며, 더구나 「上從叔父書」는 짧다고는 말할

36)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16, 59~117쪽.

수 없는 분량의 글이다.

흐모하는 사람의 글을 정리하여 편차할 때, 서문을 제외하고 본 내용의 구성에서 대개 편집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첫머리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로 퇴계가 주자의 편지를 가려 뽑은 『朱子書節要』를 들 수 있는데 퇴계의 自序와 간행소의 발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 다음 차례의 본 구성에서는 퇴계가 李仲久에게 답한 편지가 가장 먼저 실려 있다. 이 편지의 내용 안에 『절요』를 편찬하는 경위와 가치가 드러나 있기에³⁷⁾ 책머리에 놓이는 글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후대의 문인 학자들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퇴계의 제자인 이상정은 스승의 편지를 가려 뽑아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찬하면서, 퇴계가 『朱子書節要』를 편찬한 방식을 따라 아예 서문 대신 이상정이 김종덕에게 답한 편지를 『退溪先生書節要』의 앞쪽에 두었다.³⁸⁾

그렇다면 여기서 시경의 글귀와 풀이로 구성되어 있는 「上從叔父書」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柵山文稿』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것인가? 김려는 아마 도학에 근간하고 있는 이우신 작품의 가치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경계와 교훈이 담긴 『시경』의 글귀로 채워진 내용에, 마치 편지글과 같은 형식의 제목인 「上從叔父書」를 『柵山文稿』의 첫 작품으로 실어 둔 것은 김려의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題後」에서 언급한 이우신에 대한 김려의 평가, 그가 『柵山文稿』의 편집 과정에서 서독의 첫머리에 배치한 글의 성격은 이우신의 文에 대한 인식을 타인의 관점에서 엿볼 수 있게 해준다.

37) 퇴계는 이중구에서 답하는 편지에서 주자가 다른 문인들과 처세, 강학을 담론한 편지글의 가치를 밝히고 『朱子書節要』를 편찬하는 경위를 설명해 놓았다.

38) 이상정이 편찬한 『退溪先生書節要』에는 서문이 없으므로 이상정이 김종덕에게 퇴계 편지글의 가치와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한 편지를 서문 대신 앞에 두었다. 이는 퇴계가 편찬한 『朱子書節要』에 퇴계가 이중구(李仲久)에 답한 글을 수록한 예를 따라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廣瀨集』 권7, 「附大山答川沙書于退溪先生書節要卷首」)

지인들에게 보낸 서독의 내용 중에 이우신의 文에 대한 인식이 짧게 표출된 단락이 있다. 『柵山文稿』에 수록된 6편의 편지글 중에 『答金鴻豫書』에서 文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소재로 5가지의 요소를 거론하고 끝부분에서 바른 품행에서 文이 비롯된다는 실천적인 성격을 언급하였다. 『答金季良書』에서는 말과 마음, 文과 氣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말을 다듬어 성실함을 세워야 한다.[修辭立其誠]”라는 방향을 수신인에게 제시하였다. 또 『答洪綏卿書』에서 과거 시험을 위한 문장에 몰두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道의 실천과 자기 수양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文에 가깝다.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6편의 書牘 내용 중에 이우신이 문장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정리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홍예에게 답하는 편지」

대저 文에는 5가지 재료(五材)가 있으니, 志, 氣, 道, 事, 體입니다. 志는 주체, 氣는 보조, 道는 날줄, 事는 씨줄, 體는 이들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밀하고 성실함은 志가 순일한 것이고, 깨끗하고 조화로운은 기가 순후한 것이고, 두루 통하고 겹겹이 싸여 있는 것은 도가 관통한 것이고, 엄히고 섞인 것은 일이 짜여진 것이고, 典謨·誥訓은 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³⁹⁾

이상은 文의 五材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이우신은 文을 志, 氣, 道, 事, 體가 작용하여 형성된 총체적인 결과물로 보았다. 각각의 재료(材)에 따라 文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이 달라서 志가 순일하면 文이 정밀하고 정성스러워지고 氣가 순후하면 文이 곱고 조화롭어진다고 보았다. 또 道가 文을 관통하면 두루 통하고 든든해지며 일이

39) 李友信, 『柵山文稿』, 『答金鴻豫書』. “夫文有五材, 志也·氣也·道也·事也·體也. 志主也, 氣輔也, 道經也, 事緯也, 體其合也. 故精深實懿, 志之壹也; 清婉尊和, 氣之醇也; 周流郛郭, 道之貫也; 糾紛錯互, 事之綜也; 典謨誥訓, 體之成也.”

文에 모이면 조직적으로 짜여지며, 이와 같은 체제가 잘 이루어진 것이 典謨, 訓誥와 같다고 하였다.

주체와 보조로서의 志와 氣, 날줄과 씨줄로서의 道와 事는 서로 對를 이루는 요소이고 體는 이들을 수합하는 양상임을 미루어 볼 때, 5가지 재료의 성격과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끝부분에 전체를 포괄하는 듯한 성질의 ‘體’는 마치 五常에서의 ‘信’이나 五行에서의 ‘土’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는 “威儀를 삼가고 志慮를 곧게 하면 文이 여기에 있게 된다.[慎其威儀 貞其志慮 則文在是矣]”라고 하여 文을 위한 마음가짐과 경계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였다. 이는 단순히 작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文이 아니라, 文의 본질을 ‘威儀를 삼가고 志慮를 곧게 하는’ 수양의 차원에서 인식한 것이다.

② 『김계량에게 답하는 편지』

대저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文은 氣가 입혀진 것입니다. 마음이 순정한 자는 말이 반드시 정일하고 아름다우며, 기운이 안정된 자는 文이 들떠서 옮겨 다니거나 경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氣를 기르지 않아서는 안 되며, 말 또한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전에 “말을 다듬어서 성실함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말은 전달되기만 하면 될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죽하게서 다듬은 말은 성실함을 세우려해서입니까? 그 뜻을 전달하려 해서입니까?⁴⁰⁾

위의 편지 내용은 말과 文을 논하면서 修辭와 辭達에 대한 이우신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공자가 언급한 辭達에서 文의 범주를 유추해 보

40) 李友信, 『柵山文稿』, 『答金季良書』. “夫言心之發也, 文氣之被也. 其心醇者, 其言必精一而英爽; 其氣定者, 其文不游移而輕揚. 故氣不可不養也, 言亦不可不慎也. 經曰: ‘修辭立其誠’, 又曰: ‘辭達而已’, 足下所修之辭, 將以立其誠乎? 將以達其旨也?”

자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학가가 정치가인 동시에 사상가였던 고대 중국에서 文을 순수한 문장으로 한정해서 이해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⁴¹⁾ 이 말은 文을 순수 글쓰기 방식보다는 학문과 사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우신은 여기서 辭達의 辭를 文章이나 言辭의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방편인 말과 文에 대해 논하면서 각 속성을 밝히고 이를 가다듬는 노력을 중요시하였다. 또 말의 바탕인 마음과 文의 바탕인 氣를 올바르게 함양할 것을 주장하고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우신이 생각하는 辭達은 대상에게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문장 자체로서의 純文學의 성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우신은 김계량에게 글을 지움에 있어서 단순히 전달 기능으로서의 文에 그치지 말고 ‘立其誠’을 목표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내면의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文의 기능을 표방하였다. ‘精一한 말과 重厚한 文을 위해 마음을 순정하게 가다듬고 기상을 길러야 한다’는 이우신의 견해는 ‘文은 내면이 자연스럽게 발로된 것이다’라는 관점에 비중을 두면서, 이와 동시에 ‘文은 내면의 수양을 위한 도구’라는 수사의 효용을 인정하는 관점 또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③ 「홍수경에게 답하는 편지」

문장의 말단에 얽매이고 떠들썩한 과거장을 드나들며 번잡하게 활개치며 가만있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제가 십 수 년 간 그르쳤던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서야 겨우 뉘우칠 줄 알아서 늘그막에 수습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질이 혼탁하여 버릇이 된 부분은 고치기 어려워서 거동과 말투가 그대로 본래의 기량입니다.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그저 科文과 詩作에 대해 급급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⁴²⁾

41) 이원규, 『蘇軾의 辭達論』,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42) 李友信, 『杻山文稿』, 『答洪綏卿書』. “纏繞於文字之末, 出沒於場屋之間, 膠擾波

위의 「答洪綏卿書」에서는 이우신의 문학적 태도에 대한 자기반성이 드러난다. 십 수 년 간 문장의 말단에 치우치고 科擧 합격을 위해 문장 다듬기에 열중했던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뒤늦게 뉘우치고 있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문장에 대해서는 타고난 자질의 한계로 이미 습관이 되어 버린 부분을 고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과거를 위한 문장과 시 창작을 위한 글짓기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매달리지는 않게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이를 이우신 자신의 문장을 내실없는 형식적인 문장으로 간주한 겹사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진정성을 떠나서 과거 합격을 위한 문장 다듬기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글짓기 연습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科文을 위한 공부의 폐단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은 이우신뿐 아니라 당대의 여러 문인들이 문장을 논한 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科文을 비판하는 一群의 문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관념으로 道文一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조건에서 修飾를 합리화하는 입장보다는 내실과 자기수양을 중요시 여기는 관점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이우신이 한 때 소품체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지었던 일부의 옥대향림체를 근거로 해서는, 그의 전반적인 문학 경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다. 이우신의 문학 중 특정 시기, 일부의 작품을 근거로 작가의 문학적 관점을 소품적 문학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작가의 생애와 과도기적 사건, 또는 이에 따른 심경 변화가 나타난 작

蕩靡所底止者, 此愚十數年顛到之習, 而近方略知自悔, 圖所爲桑榆之收. 然氣質昏駁, 熟處難改, 容止辭氣, 依然是本來技倆. 其所稍異於前者, 特不數數於功令詩騷之間耳.”

품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의 文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작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우신이 어떠한 문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柵山文稿』에 실린 그의 산문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이우신과 문학적으로 교류했던 이안중의 죽음, 종숙부 이노일과의 별리, 민치복의 충고를 통해 변화를 다짐한 이우신의 문학 노선을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부 작품에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고 가난하게 지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가 가진 일부의 비판의식과 곤궁함을 두고 이우신이 삶의 큰 절곡을 겪고 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표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대의 노론계 문인과도 두루 교류하였으며 유학에 바탕을 둔 가치를 추구한 그의 사상이 화서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외부 환경에 의한 갈등보다는 내면의 성찰과 대상에 대한 인식의 고민이라는 범주 내에서 작품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柵山文稿』에는 이우신의 작품 22편과 편찬자인 김려의 발문을 포함하여 총 23편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 이들 산문에 드러난 문학적 소양의 주된 맥락은 道를 기준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토대로 한 그의 규범적인 文에 대한 태도는 도덕적 수양을 추구하는 태도로 연계되어 나타난다.

세부적인 고찰을 위해 『柵山文稿』에 실려 있는 산문 중에 ‘文’을 주제로 한 논변을 중심으로 이우신이 생각하는 道와 文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道에 무게를 두면서 文의 사회 교화적 기능도 중시하였는데, 이는 文의 기능을 개인의 학문적인 영역에서 道의 실현이라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글에서는 이우신이 文을 거론한 부분을 발췌하여 文에 대한 그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科擧 공부를 위한 문장을 지양하고 자아성찰과 내면수양의 수단으로 文을 정의한 부분은, 文을 통해 道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내포한 것이다. 文을 논하면서

내면적 수양을 권면하고 과거 修飾에 치중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道에 바탕을 둔 그의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이우신의 문학적 태도 변화와 산문에 드러난 그의 文論을 참고하여 이우신의 문학적 관념에 대한 평가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文에 대한 그의 관점이 드러난 특징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다루었으나, 작품에 따라서 복합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고, 『柵山文稿』에 실린 다른 산문 작품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우신의 문학적 평가가 일부의 시 작품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던 경향에서 벗어나, 산문 작품의 접근과 분석을 통해 道에 바탕을 둔 그의 규범적인 문학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김려, 『瀟庭叢書』, 학자원, 2014.

강명관, 「鄭道傳의 載道論 研究」, 『漢文學論集』, 檀國漢文學會, 1992.

김근호, 「18세기 호락논쟁과 19세기 심설논쟁으로 중심으로」, 『孔子學』, 한국공자학회, 2015.

김영진, 「金鑣의 編書 활동과 交遊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김철조, 「한문산문 연구의 회고와 전망」, 『대동한문학』 19집, 대동한문학회, 2003.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박정민, 「『瀟庭叢書』의 제량체와 옥대향림체 독해를 위하여」, 대동한문학회, 김려 탄생 250주년 기념학술대회, 2016.

박준원, 「睡山 李友信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1995.

_____, 「『瀟庭叢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송혁기, 「도문일치 이상에 대한 논변과 유교적 문학관: 17-18세기 조선의 경우」,

-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학술대회』,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0.
-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의 계문제」 『한국한문학회연구』, 한국한문학회, 2016.
- _____,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한유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권, 민족어문학회, 2004.
- _____, 『한문산문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윤재민, 「문체반정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 21권, 한국고전문학회, 2002.
- _____, 「조선시대 문인학자들의 문학관」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이가원, 「漢文 文體의 分類的 研究(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0.
- 이원규, 「蘇軾의 辭達論」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 이향준, 「이향로-역사의 비탈길에 선 성리학자의 기획」, 『孔子學』, 한국공자학회, 2015.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투고일 2017. 7. 31 심사시작일 2017. 8. 16 게재확정일 2017. 9. 23

Abstract

A Study on literature theory of Lee Usin appeared in
『Yoosanmoongo(杻山文稿)』

Kim, Gi-yeop

The late 18th century in which Lee Usin(李友信) lived was a time of significant change in literary concept and also that of diverse, intensive debates in writings. He had conducted his literary activities, closely interacting with a number of vignette style writers from his young days. However, considering his life as a Neo-Confucianism master and a moralist, this kind of his literary activities is quite unconvincing.

This study focuses on his works, particularly written in his early years in which he used to interact with vignette style writers and the later years in which he used to concentrate on ethics ideology. The aspect of changes in his literary tendency was examined to see the change appeared in his attitude toward literature, targeting his works and description showing the trigger of such changes. Then in order to figure out his cognition of writings, his prose in 『Yoosanmoongo(杻山文稿)』 was also analyzed.

There are 23 prose writings in 『Yoosanmoongo(杻山文稿)』; 22 were written by Lee Usin and 1 epilogue was written by the compiler, Kim Ryeo. Although Lee Usin didn't leave many works, it is not difficult to presume his literary direction thanks to Kim Ryeo's compliments saying that Lee Usin surpasses the writing style of China's Tang and Sung Dynasty, and is even comparable to Sima Qian and Dong Zhongshu along with the writing style of Pre-Qin and Ha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o(道) and Literature(文) set by Lee Usin, based on literature(文)-themed arguments in his prose out of the works contained in 『Yoosanmoongo(杻山文稿)』. Basically placing emphasis on Tao, he also regarded the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文), and this implies that he tried to expand the function of literature(文) from

individual academic sphere to common, social sphere.

The study also looked into his point of view on literature(文) by extracting his mentions about it from his letter writing. He defined literature(文) as the means to avoid writings for Gwageo and achieve introspection and inner self-improvement; this is based in his point of view supporting that it is possible to clarify Tao(道) through literature(文).

We should not make a hasty conclusion to consider his literary perspective as vignette style only based on parts of his works in his early days. Instead, it is needed to approach holistically, looking into the writer's life, transitional event, or consequent change of his mind. Now it is necessary to set his literary concept by taking his view of the later years to reflect on the traditional attitude sticking to embellishment of writing and to realize Tao(道) through literature(文) into account.

Keywords Lee Usin(李友信), Damjeongchongseo(澗庭叢書), Yoosanmoongo(柵山文稿), Prose(散文), Domoon(道文), Writing(文章), Neo-Confucianism(道學), Vignette Style(小品).